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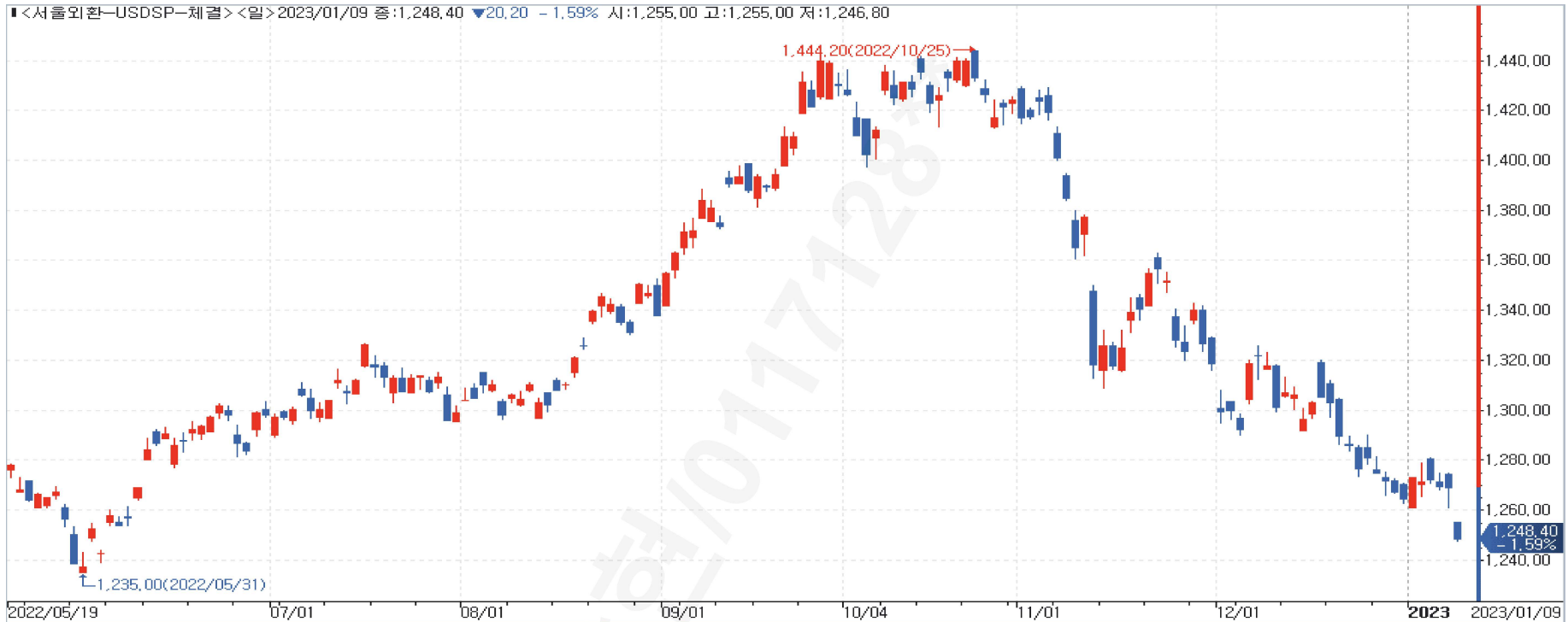
2023. 1. 9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1/6)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연말 크게 환율이 하락한 영향에 따른 오버슈팅을 반영하며 출발한 달러/원 환율은 대내적 결제수요 유입과 대외적 유로존 물가 대응에 대한 속도 조절 기대 등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반영되며 상승 출발. 이어 엔화 강세 요인 등의 대외 이슈에 동조되며 소폭 강세 흐름 전환
- 중반, 유로 물가 상승세 둔화 국면을 반영한 유로 약세로 달러 강세 영향 반영된 흐름 보이다 중국 부동산 기업 지원 소식에 의한 위안화 강세에 동조 흐름
- 주 후반, 미 연준 의사록이 매파적이었지만 시장가격에 기반영인 영향으로 하락세 이어간 가운데, 주 후반, 미 ADP 민간고용이 예상치 상회함에 따라 달러 강세 반영 후,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 동조되며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 금주 환율은 미국의 견조한 고용지표 흐름에도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 속에 하락 흐름 나타낼 전망
- 특히, 시간당 임금 상승률 둔화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중 예정된 12월 CPI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연준의 2월 FOMC에서 긴축 강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측면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의한 위안화 강세 흐름도 원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61.0	1280.9	1260.2	1268.6	+4.1

예상거래범위

1,240원 ~ 1,260원



엔·유로화 동향 (1/2~1/6)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총재의 유로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등으로 유로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락에 따라 크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탄력 받으면서 약세 전환
- 중반 들어, 연준의 12월 FOMC 의사록이 여전히 당분간 매파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제시된 가운데, 유로존 내 독일 소비자물가 지표의 예비치가 8.6%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 확정치인 10%보다 뚜렷하게 감소된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한 형국
- 후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따른 연준 매파 성향 경계감 등으로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유로 약세 흐름 지속. 이어 주 후반,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매파 연준을 자극할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이미 가격에 선반영 되었다는 인식 속 시간당 임금 상승률 둔화가 오히려 크게 부각되며 달러 약세 견인에 유로화는 강세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707	1.0709	1.0483	1.0645	-0.0061



엔화 동향

- 주초, BOJ의 YCC 정책 변화 이후 강세 흐름에 따른 국채 매도세 강화 제한 등으로 소폭 약세 흐름 출발. 이어 재차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영향이 부각되며 강세 전환
- 중반 들어, 연준 의사록의 매파적 행보 지속 전망 속 시장의 BOJ 출구 모색 기대 등에 따른 엔화 매도 포지션 대량 청산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재전환
- 후반 들어, 미국 민간 고용 호조 속 연준의 매파 행보 지속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엔화 약세 지속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미 인플레이션 감소 기대 등으로 달러화가 약세 전환한 영향을 반영함에 따라 엔화는 강세 전환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1.3	134.7	129.5	132.1	+0.8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6]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국고채 금리 레벨 부담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대내외 특이 이슈 부재 속에 전일 미국채 금리 상승에 동조하며 상승 출발. 이어 수급상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속에 정책 당국의 국고채 시장 우호 발언 등으로 하락
- 중반 들어, 뉴욕 금융시장에서의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독일의 12월 CPI감소세 등을 반영하며 하락 추세 이어간 양상
- 후반 들어, 연준 12월 의사록이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되었지만, 경기침체 우려 등이 국고채 매수세를 자극한 가운데 장단기물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며 일드 커브는 평탄해지는 양상을 나타낸 후, 주 후반,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단기 구간 중심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새해 들어 주요국 증시 휴장 등으로 증시 방향성의 주요 모멘텀 부재 속에 국내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 등에 따른 기관 매도 강화 속에 하락 출발. 이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시설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 소식 등이 일부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속된 기관 매도 강화로 2,200선 붕괴
- 중반 들어, 전일 정책 당국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따른 반도체 업종 중심 투자심리 개선 속 외국인 투자자 대규모 순매수 등으로 2,250선 안착
- 후반 들어, 국내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과 중국의 홍콩 접경 지역 왕래 재개 발표에 소폭 상승 후, 주 후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악화에도 설비투자 축소 등을 통한 공급정책 수정 기대감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매수 강화 등으로 큰 폭 상승 흐름 이어가며 마감